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1월 12일(수)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문화예술회관	담 당 자 • 기획운영팀장 이동선 ☎420-2710 • 담당자 정수산나 ☎420-2736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 1·2단계 구분 추진 → 통합 추진으로 리모델링 사업 변경 -
- 대·소공연장 무대 및 객석, 관객 편의시설 등 개선 -
- ‘개관 30주년(2024년)’에 맞춘 예술회관의 새로운 도약 마련 -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2017~2019년)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전국 평균 58.2%)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1·2단계 ‘구분 추진’ → 2단계를 3년 앞당긴 ‘통합 추진’으로 진행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2021~23년, 333억 원)와 2단계(2026~27년, 151억 원)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함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7년 → 4년)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계속비)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단계(333억)					2단계(151억)	
설계 21.3 ~ 22.1	공사 22.5 ~ 23.6		-	-	설계 26.3 ~ 12	공사 27.3 ~ 12

<통합추진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통합 추진(484억)						
설계 21.3 ~ 22.7	공사 22.9 ~ 24.8			-	-	-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노후 시설 전면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무대환경 기능 개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 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객석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새로운 관람 환경 조성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립예술단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환경 구축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변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 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이미지 통합)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032-420-2051

<붙임> 문화예술회관 사진



인천문화예술회관 외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